*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 토론회

2003.5.22

주최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교수
성폭력
토 론 회

contents

2 "교수님! 듣기 싫어요!"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 사례 정리 및 문제점

10 '성폭력사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학내 성폭력피해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소고

15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불쾌한 이야기를 해요!"
수업 중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18 '여성교수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토론회 순서

▼ 발제 1 :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 사례 정리 및 문제점

- 채하승언(총여학생회 반성폭력 위원회)

▼ 발제 2 : 학내 성폭력피해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소고

- 김영희(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전임상담원)

▼ 발제 3 : 수업 중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 김한선혜(총여학생회 회장)

▼ 종합 토론

수업시간에 듣게 되는 불쾌한 얘기들..
분위기를 좋게 한다며, 또는 수업 이해를 돕는다며,
혹은 아무 상관없이 내뱉어지는 말들...

여자는 집에나 있어야 한다나,
어차피 '시집'이나 갈 여학생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라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불편하게' 노골적인 이야기들...

심지어 교재가 비싸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하고,
여학생들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몸을 팔라는 이야기까지...

강단에 선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학생이기에 그냥 웃어넘기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성폭력적, 성차별적 발언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러한 발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수님! 듣기싫어요!"

-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 사례 정리

성폭력 사례들을 수집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 교수들의 성폭력에 의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거리낌 없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교수들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교육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에는 서강대 K 교수와 동국대 K교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넓고 깊이 고민해 보려는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이하 교성뿌연)'이라는 연대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펼쳐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자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스승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수 對 학생'이라고 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만-이때의 가르침은 학문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인간적 가르침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대학 사회에서 사제간의 수직적 권력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교수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학생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교수님의 그 말씀은 저에게 불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찾기 및 문제 제기가 아니라 '도발', 혹은 '버릇없는 짓'이 된다. 게다가 교수가 주는 학점을 받아야 하고, 좀더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학점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하여 교수들의 문제 의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랄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이제까지 많은 교수들의 문제있는 발언들이 묻혀져 왔던 데에 문제 의식을 느낀 총여학생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적 발언들과 성차별적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고,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만들어 가자는 목적으로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초부터 약 3주간 총여학생회 메일(feminist@yonsei.ac.kr)과 웹사이트 '언니네' 내에 있는 커뮤니티 '교수 성폭력 사례집'의 익명게시판을 통해 최근 몇 년 간 학내에서 발생한 교수들의 발언에 대해 신고를 받았다. 수집된 약 20개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type 1 : 성폭력적 발언

*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언어 사용 및 자료 활용

[사례 1] 2003년 1학기 사학과 전공수업 중 P강사가 "왕이 궁녀를 따먹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례 2] 2003년 1학기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전공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안색이 좋지 않은 여학생에게 "A야, 임신했나?" 라고 한 교수가 있었다.

[사례 3] 2001년 1학기 현대사회와 심리학 수업 시간에 L교수가 졸고 있는 여학생에게 "학생, 학생은 밤업소 나가나?"라고 하였다.

[사례 4] 2003년 1학기 치과대학 치과재료학 수업 중 K교수가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남중, 남고만 다니다가 대학 와서 여자들이 많으니까 눈에 그냥 여자들만 보이더라구. 나중에는 학교에서 지나가는 여자 다리만 봐도 누군지 알았지."라고 하였다.

사례 1, 2, 3, 4는 농담이라는 외피를 쓰고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언어적 성폭력이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 자주 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에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말들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것들이고, 이는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필연적으로 배제 및 소외시킨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별 문제 없이 묻혀진다. 그저 교수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애들 즐겁게 해 주려고', '잠좀 깨워 보려고' 한 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순식간에 강의를 좀 재미있게 해보려는 교수의 의도를 오독한 학생, 교수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마는 학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사례 5] 2003년 1학기 치과대학 본과 1학년 해부학 수업, 초청된 의과대학 교수가 어깨와 팔 부분을 가르치게 되었다. 어깨에 있는 젖샘 부분에 대해 강의하던 중 젖꼭지의 해부학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교수는 "젖가슴이 매우 큰 여성은 젖꼭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며 포르노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유방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나신의 여성이 팔에 호피무늬 천을 감고 웃으며 가슴을 내밀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본 남학생들은 "어~ 어~" 소리를 내거나 킥킥대고 웃었으며 여학생들은 침묵을 지켰다. 교수는 "어유, 이것 봐, (젖꼭지가) 거의 배까지 내려오네."라며 웃음기 띤 얼굴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소에는 레이저 불빛이 나오는 펜을 사용해 인체의 각 부분을 지적하며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 젖가슴의 형태와 구조 등을 설명할 때는 여성의 젖가슴 그림을 쓰다듬는 것인지 가리키는 것인지 모호한 손짓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해 나갔다. 시간이 부족해 매우 빡빡하게 진행되는 수업 중 실제로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젖가슴 부분의 강의에는 다른 부분을 강의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였던 것이다.

[사례 6] 2002년 겨울 원주 계절 교양수업. 교수는 미학 전공자였고 평소 그림과 사진 등의 자료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낭만주의에 대해 강의하던 중, 먼 곳이나 이국에 대한 동경이 낭만주의 사조의 주

된 주제가 되어왔다고 하면서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보여 주었다. 알제리의 저자거리를 묘사한 그 그림에는 옷을 벗은 몇몇의 여성들이 뒤돌아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자 교수는 이런 곳이 모든 남성들이 한번쯤 가고 싶어 할 동경의 장소가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또한 이 앞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느냐, 아주 쉽다, 그림을 뒤집으면 된다고 한 뒤 거꾸로 그림을 뒤집은 파일을 보여주고 수업을 끝냈다.

사례 5, 6은 교수가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된 경우이다. 사례 5의 경우, 다른 수업 시간에는 '강의용' 인체 사진을 사용하였던 데 비해 가슴 부분을 강의할 때만 학생이 포르노라고 느낄만한 사진을 굳이 사용했다는 것, 여성의 젖가슴 사진을 지적할 때 평소에 사용하던 레이저 지시펜 대신 자신의 '손'을 사용했다는 것-게다가 쓰다듬는 듯한 손짓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볼 때 의도적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사례 6은 수업의 맥락과 상관없이 단지 나신의 여성들을 화제로 삼아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여성의 '벗은 몸'이 성애화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위 사례들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사진을 본 후에 나타난 남/여 학생들의 상반된 반응과 사례를 신고한 학생의 '사진을 보고 분노를 참느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교수들의 성폭력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재 혹은 부족함

[사례 7] 2003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 전공수업,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프로이드의 '자기방어기제'에 대한 수업 중, '취소'라는 기제에 대해 예를 들면서 "아내 때리는 남편들 중에 폭력 쓰고 밍크코트 사주고, 다이아 반지 사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폭력 행동이 없었다~고 심리적으로 취소시키는 거죠. 제가 아는 언니 하나는 남편에게 맞은 뒤에는 반지가 달라져요. 철이 좀 없어서인지, 반지가 달라진 뒤에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것 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또 맞았군... 그러죠."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방어기제 중 '보상'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예시로 시골에서 자란 남성이 해외유학파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며 "그런데 이 결혼이, 완전 여자가 당한 거예요. 같이 MT가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여자를 선배가 덮쳐서 뽀뽀하고 찜, 해버린거예요."라고 하였다.

[사례 8] 2002년 2학기, 사회학과 정보화 사회 시간. 유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리방이라는 곳이 있다. 호스티스들이 유리 안에 들어가서 춤추고 뭐 그러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례 9] 2002년 2학기 법과대학 헌법(2) 첫 시간에 수업 교재인 '헌법 강의'라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남자애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아~ 이거 또 여자애들이 성희롱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니깐 그냥 들으라구."라고까지 하였다.

사례 7에서 교수는 남편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내 폭력'을 예시로 들면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내를 단지 '남편에게 맞고 나서도 철없이 반지나 자랑하는' 여성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나 자신이 당한 폭력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상황과 위치는 지워져 버린다. 또한 MT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덮쳐서 찜해버린 것'이라고 희화화시킴으로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나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사례 8에서는 교수가 '유리' 이야기를 하다가 유리방 이야기를 꺼내었다.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라는 교수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유리방이라는 곳이 그저 '유리로 만들어진 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업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성의 시각에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유리 안에서 춤추는 호스티스'로 대상화하는 것은 충분히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말이다.

사례 9에서 나타난 교수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교수에게 남학생은 막노동할 수 있는 사람, 즉 육체적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노동을 함으로써 책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다르다.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는 말에는 모든 여성들을 '돈만 있으면' 남성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교수에게 여학생은 '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 성적 대상으로서만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특히나 이 교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라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성폭력의 판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인지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자신의 성 체험에 대한 이야기*

[사례 10] 2001년 1학기, 현대 사회와 심리학 수업 시간에 L교수가 자신의 섹스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섹스는, 신혼 초에는 레귤러 스타일로 했다가 점점 다르게 해야 한다. 처음엔 평범하게 해도 나중에는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과목에서 '남성 교수'에 의해 이런 발언이 이루어질 때 여학생들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 특히나 이런 이야기가 수업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여학생들의 당황스러움은 더더욱 커진다. L교수는 종종 진행되는 수업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섹스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수업을 수강하는 여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섹스 경험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화된 것인지의 여부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type 2 : 성차별적 발언

*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해내는 발언

[사례 11] 2003년 1학기, 치과대학 수업에서 K교수가 '딸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례 12] 2003년 1학기, 치과대학 수업에서 K교수가 고분자 재료의 기초를 강의하던 중 고분자는 물을 뿌리면 Tg가 낮아져서 잘 연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림질은 주로 여자들이 하는데, 여자들이 다림질 할 때 물 뿌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엄마가 물을 뿌리고 다림질 하니까 딸도 따라서 물 뿌리고 하는 거지. 물 뿌리면 왜 다림질이 잘 되는지 알고 하는 여자 하나도 없을걸."이라고 하였다.

'~년'이라는 말이 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앞에 '딸'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수업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은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딸은 아들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딸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의 '딸'에 대한 비하라기보다 가정 내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암시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무식한' 주부, 혹은 아줌마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게 된다. '다림질을 주로 여자들이 한다'는 발언에는 가사 노동은 여성들만의 몫이라는 고정관념과 가사 노동에 대한 비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 남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외모주의(lookism)에 근거한 발언

[사례 13] 2003년 1학기, 생활과학대학 디자인 매니지먼트 수업. 발표를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고 교수는 평소에 발표시의 정장 차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어느 날 발표를 맡은 학생이 치마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오자 출석을 부르던 중 그 여학생을 가리키며 "여러분~보십시오, 오늘 **가 발표를 위해 화장까지 하고 왔습니다. 평소 절대 안하던 화~장을 했습니다.", "치마까지 입었군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하기 때문에 다리도 예뻐야한다."고 하였다.

[사례 14] 2001년 1학기, 현대사회와 심리학 수업에서 L교수가 여성의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남성의 심리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여성을 '메주'라고 표현하는 등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여성의 미모=여성의 경쟁력'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어느덧 통념처럼 되어 버린 지금이다.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외모 지상주의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강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 도중에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고 지양되어야 할 외모 지상주의를 당연시할뿐만 아니라 옹호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 '여성의 행복=결혼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발언

[사례 15] 2003년 1학기, 고시반 행정학 수업에서 P강사가 "여자 나이가 20대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다.", "여자가 고시 붙으면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면 결혼의 배우자 선택 범위가 줄어든다." 라고 하였다.

[사례 16] 2000년 1학기, 영문과 셰익스피어 수업에서 "여자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이고,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이다. 여자들은 삼종지도를 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도 여기 있겠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표현)"라는 말을 한 교수가 있었다.

[사례 17] 2002년 1학기 생활한문 수업 중, C강사가 칠거지악을 가르치면서 "여자가 애를 못낳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쫓겨나야 한다" "여자가 얌전해야지 나서면 어수선하다"라고 하였다.

[사례 18] 2001년(2002년) 영문과 수업 중, 한 교수가 재학 중에 시집을 가면 A학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가면 B학점, 졸업 후 취직하면 C학점, 대학원에 가면 F학점이라는 농담을 하였다.

[사례 19] 2003년 1학기 고시반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P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예시를 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결혼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기를 즐겼다.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 분석법[1]'의 과정을 결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이 때의 결혼은 '자원을 가진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된다. 또한 여성 배우자의 조건은 얼굴, 몸매, 돈, 학벌 등으로 매겨진다. 이 분석기법을 '배우자 선택'이라는 문제에 적용하면 "최고의 배우자 고르는 문제"가 상위목표로 설정되고, 그 다음 이를 구성하는 요소의 우선순위대로 얼굴, 몸매, 돈, 학벌 등을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 후 상대 점수를 매겨 배우자 범위의 몇 명을 매칭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후 구성 요소를 돌씩 짝지어 매겨진 점수를 matrix에 기록하면서 몇 가지 수학적 계산을 하여 최고 점수의 배우자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 계산된 배우자는 최선의 배우자이므로 다섯 번 이하에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많은 여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아직까지도 여성의 활동 영역을 가정에 국한시키고 여성의 행복은 '현모양처'라는 19세기적 편견을 재생산해낸다. 결혼이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일임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발언들은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려 한다. 게다가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 '남성'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결혼이 여성들을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결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진

1) 어떤 문제를 '계층'으로 분해하면서 상위목표부터 하위목표의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을 숫자로 나타내는 절차를 거치는 것.

지하게 고찰하는 것은 둘째치고, 결혼의 주체를 남성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여성을 결혼의 '객체' 혹은 '대상'으로 상정해 버리는 것이다. '결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교수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는 점 역시 큰 문제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칠거지악을 재해석하고 비판해도 모자랄 상황에 그런 구시대적 유물을 이어가자고 하는 발언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가사 노동과 내조에 힘써야 한다는 케케묵은 생각이 전제가 된 발언들이 강의 중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학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이 외에도 성폭력적이거나 성차별적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이성애중심적이고 연애지상주의적인 발언들이 학생들의 불쾌감을 조성했다는 사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질문에 대답한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한 일(2002년 2학기, 사회학과 역사사회학 시간)이나, 예를 들 때 '남자친구/여자친구' 혹은 '이성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성적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성차별적·성폭력적 발언은 왜 계속되는가?}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수님들의 성폭력적 발언 앞 혹은 뒤에는 이러한 단서가 종종 붙는다. 또한 그러한 발언에 대해 한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성폭력적 · 성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들의 사고 안에 성차별적 · 여성비하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한 발언들이 그저 농담이었고, 별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사고 체계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없었다면, 그것이 그리 쉽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적인 농담,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언들이 공공연히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대학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의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교수님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작용할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의 반복일 뿐이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불쾌해하는 학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교수님들의 성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은 수업 중 성폭력적 · 성차별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용한다.

수업 중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학생은, 그것이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과 그 발화자가 교수라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른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에 자신만 혼자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문제 제기로 인해 수업의 분위기가 이상해지지는 않을지 고민하게 되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가 암묵적으로 동의된 사회 내에서, 또한 수업 내에서의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학생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수님의 발언 그 자체가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임이 명백함에도, 학생이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오히려 교수권 침해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교수에게 딴지를 건 학생'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문제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자책과 2차 가해 등 또다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한 낙인은 학점이나 논문 등 학생의 학교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더더욱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괜히 이야기해서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참고 넘어가자'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교수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수들이 내뱉는 성폭력적 · 성차별적 발언 때문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더라도, 교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 즉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것이 불투명할뿐더러 오히려 자신만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추측과,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 등의 요소로 인해 쉽게 문제 제기 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마치게 된다. 그 다음 학기에 그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고 문제 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교수는 분명히 다음 학기에도 똑같은 혹은 비슷한 말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교수가 수업을 계속 하는 한 누군가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교수의 성적 농담에 재미있어 하던 학생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교수에게 은근히 바랄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교수의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도 재미는커녕 불쾌감만 느낀 학생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한 학기동안 자책하며 수업 시간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교수와 학생 모두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제 의식을 높이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

"성폭력사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학내 성폭력피해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소고

- 김영희(교내 성폭력상담실 전임상담원)

1. 들어가며

성폭력은 단순히 폭력을 가하는 남성이나 피해를 입는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성문화와 성별 권력의 문제와 맞닿아 암묵적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전체의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역시 이러한 성폭력의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내 성폭력은 스승과 제자사이의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문화, 강의시간과 사적인 자리에서 성적인 언어를 상대방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화, 집단으로 재미를 위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상대방(약자)의 공간을 힘껏 짓밟을 수 있는 문화, 이러한 대학내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이를 조장하는 왜곡된 성담론, 자유로움과 평등함 속에 만연해 있는 위계와 권위,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의식, 성평등과 양성존중에 둔감한 대학내 분위기 등이 대학내 성폭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학생수가 40%에 이르고 있는 본 교 역시 성폭력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교는 94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여학생처내 핫라인 전화를 설치하여 학내 성상담 및 성폭력 관련문제 처리에 관여하여 왔으며, 2001년 1월에는 여학생처내에 성폭력상담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어 학내 성고충처리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교 상담실은 성상담, 성교육, 성폭력피해 신고사건 처리를 주요 업무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지면에서는 학내 성폭력피해 신고사건의 처리절차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학내 성폭력피해 신고사건의 처리절차

1) 상담

- 전화, 방문, e-mail 방법을 이용하여 성폭력피해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진다.

- 상담시 반드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상담을 받는 경우는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다(empowerment of women).

- 성폭력 피해에 대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가해자에게 연결하여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성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상담을 하여 가해자의 의식전환 및 행동수정을 꾀한다.

2) 신고·접수

- 피해자 혹은 제3자가 상담실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신고서를 작성하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다.

- 피해자가 진술서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서면신고(e-mail, 우편)했을지라도 사실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었다면 사건이 접수된다.

3) 상담·조사면담

-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담하여 피해자 진술서와 가해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해자의 수용정도를 조사한다.

-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는 상담과 조사과정을 병행하여야 하나, 실제적으로 피해심리상담쪽보다는 고충처리 차원의 상담을 진행하여 증거물, 증인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 가해자를 면담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가해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가해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한다.

- 성폭력자문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건의 외부 노출위험과 예산부족으로 실제적으로 자문위원을 조사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4)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처리

- 상담·조사면담의 경과를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처리에 대한 심의과정과 의결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 : 교학부총장, 여학생처장, 학생복지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 일반위원 : 총학생회 부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학생회 부회장, 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

는 직원3인, 교수위원 3인 중 관련사안에만 참여

- 심의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학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으며, 공개사과, 가해자교육 등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3. 학내 성폭력피해 신고사건의 처리절차상 문제점

1) 상담·조사과정에서의 문제

- 성폭력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성폭력전문기관들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조사면담시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상담실(상담실장, 상담원)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교내 규정 제8조에 정하고 있으며, 또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업무(교내 규정 제12조)에도 성폭력사건의 조사·중재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여학생처장(현재 성폭력상담실장 겸직)만이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조사 및 처리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주요보직에 위치한 위원들이 조사 및 처리업무를 진행할 경우 스케줄을 비우기는 힘들어 사건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 피해자를 면담하는 상담원으로서는 동일인이 심리상담과 조사면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심리상담시에는 피해자 중심에 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조사면담시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뢰감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조사업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자문위원을 조사과정에 포함시켜 전문가그룹의 합의된 의사결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 조사과정에서도 권력 관계가 개입하고 있어, 상담원(직원)의 입장에서 가해자(교수)를 면담할 때 가해자의 태도로 인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2)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의 문제

- 실제적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 및 조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담원이 대책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발언권이 전혀 없으며, 사건처리에 대한 조치·징계발의 권한이 없다.

-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행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성폭력 의미에 대한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

3) 기타

(1) 예산

- 시행세칙 제12조 ④항에 의거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위한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아서 필요시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인력

- 현재 전임상담원 혼자 교육, 상담, 신고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home page에서 내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남성상담원이 e-mail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고사건 처리시 남성의 상담 및 조사과정에 참여할 남성 전임상담원의 확충이 시급하다.

(3) 교내 규정 및 시행세칙

-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교내 규정과 시행세칙을 지침으로 사건의 처리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현행 교내 규정과 시행세칙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사건처리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세밀화된 교내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4. 마치며

우리 대학의 성폭력피해 신고사건 처리절차와 현행 학칙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 미흡한 점들을 계속하여 짚어내고 우리 스스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한계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제껏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 지나치게 둔감해 있었던 대학내 성폭력 문제들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내 성폭력 유형 중에서 교수-학생간의 성폭력은 피해학생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가 보장되기보다는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한 위계관계라는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에 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교수-학생간의 성폭력은 성(sexuality)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power)에 관한 문제라는 점이다. 교수-학생간의 성폭력의 처리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호하여, 가해교수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만일 피해학생이 성폭력을 개인적인 차원의 사소함으로 무시해 버리면 가해교수는 피해학생이 반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성폭력을 계속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피해학생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는 가해교수로 하여금 성폭력을 계속해도 된다는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권리를 알아

야 할 것이다. 비단 사제간의 수직관계일지라도 교수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학생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수의 성적 언행은 분명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적 상황이 시작될 때 피해학우는 가해교수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여야 한다. 만일 분명하게 거부할 자신이 없어서 그 순간을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가해교수가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상황 당시 피해학우의 심경을 6하원칙하에 기록으로 남겨서 가해교수에서 전하고 이를 사본으로 남겨두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만일 피해학우 여러분이 가해교수에게 직접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학생회나 대학의 고충처리 창구에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사건의 처리는 가해교수의 단순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할 기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모순된 성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해교수에게 성차별적인 의식에서 남녀평등의식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대학내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성차별없는 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의 장이 도래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권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비단 사제간의 수직관계일지라도 교수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학생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수의 성적 언행은 분명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적 상황이 시작될 때 피해학우는 가해교수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여야 한다.

만일 분명하게 거부할 자신이 없어서 그 순간을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가해교수가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상황 당시 피해학우의 심경을 6하원칙하에 기록으로 남겨서 가해교수에서 전하고 이를 사본으로 남겨두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불쾌한 이야기들을 해요!"

"수업시간에 간간히 듣게 되는 성차별적인, 성폭력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제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도 찝찝한 구석이 남아있지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업시간에서까지 비하되고 차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지요.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같이 찾아가야겠어요."

#1.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하기

가장 어색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다들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 와중에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기란 쉽지 않지요. 좋은 분위기를 자신이 망친다는 죄책감이나, 나 혼자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업시간 중 농담으로 나온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성폭력적인 발언 보다는, 수업의 예시로 들은 것 중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때 더 문제제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돈이 교환되는 것이라는 예를 들면, 이 것에 대해서 예시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그 당시에는 혼자만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지만 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 수업이 끝나고 찾아가서 말씀드리기, 메일 보내기

이 방법은 수업이라는 공개적인 모두가 있는 장소에서는 문제제기하기 힘들고,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어떠한 내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생각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수님 발언 중 '어떠한'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정리해서 차분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메일을 보냈을 경우, 원하는 답변이 올 확률은 거의 희소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

다던가, 학생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던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파악하라는 정도의 답변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신 교수님들께 이러한 문제제기는 매우 협소하고 편협한 트집 정도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민반응하여 자신은 절대로 '성폭력 교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제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하는 것은 없겠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의 메일이 도착한다는 것,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길게 봤을 때 교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총여학생회에 신고하기

총여학생회에 신고하는 경우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나 앞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입니다. 혼자서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총여학생회에 신고한다고 해서 총여학생회 한 곳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내 상담실과 연계해서 학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도 있고, 다른 단체와 연계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맡아서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 학내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하기

학내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가 될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대책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교수님에게 수업시간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공문이 전달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교수님에게도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또 그 만큼 교수님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녹음을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후 자신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2-3명 정도 찾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요구 사항 이상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요구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두고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수업시간의 공개 사과를 원하는

것인지, 사과자보 부착을 원하는 것인지, 수업을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가해 교수님에게 접근해야할지 해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고, 성폭력적이지 않은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신고를 결심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다른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여성교수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 이상 채용 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을 정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3년도 학교와의 협약서에 나오는 여교수 비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교수 중 여성이 2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신규채용에 있어서 20% 여성을 채용한다고 하여도 전체 교수의 비율 20%가 달성하기는 먼 일이기만 합니다.

거의 40%의 여성이 졸업생으로 매년 배출되고 있음에도, 생과대를 제외하고는 전체 4.37%의 여성 교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성 교수님들이 전혀 없는 단과대학이 있다는 사실은 여학생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역할모델이 없다는 사실 뿐 아니라, 진학이나 취업에 관한 상담을 동성의 교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에 있어서도 여성의 시각에서 그 학문을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들이 법과대학에 여교수가 한 명도 있지 않아서, 여성의 시각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여성학 과목을 개설하도록 학교에 요구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였습니다.

여성 교수 비율의 문제는 협약서에도 나와 있는 만큼, 끊임없이 요구해서 마땅히 이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단과대별 전임 교원 성별 현황 (2003)

	교 수 비 율				학생비율
대 학	총원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학생비율
문 과 대	105	10	95	9.5%	63.7%
상 경 대	76	0	76	0%	29.0%
이 과 대	83	5	78	3.6%	40.1%
공 과 대	165	3	162	1.8%	15.9%
신 과 대	6	1	5	16.6%	26.3%
사회과학대	39	2	37	5.1%	41.8%
법 과 대	18	0	18	0%	31.6%
음 악 대	26	13	13	50%	72.3%
생활과학대	30	26	4	86.6%	84.7%
교 과 대	23	3	20	13%	27.9%
교 목 실	5	0	5	0%	32.4%(의대)
대 학 원	27	0	27	0%	
국제학대학원	11	1	10	9%	
정보대학원	4	0	4	0%	36.1%(치대)
영상대학원	3	0	3	0%	
사회복지대학원	1	0	1	0%	97.6%(간대)
연합신학대학원	6	0	6	0%	
합계	628	64	564	10.1%	37.2%

* 교수비율은 교무처 제공 2003년 자료로서, 간대, 의대, 치대는 제외한 수치이다.
* 학생비율은 여학생처 홈페이지에 나온 2002년 수치이다.
* 생활과학대와 음악대을 제외했을 경우 여교수는 25명이로 전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7%에 불과하다.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선생님, 교수님.

다 좋아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보다 모르는 게 많죠. 무식한 게 죄라고, 그러니까 한 학기에 200만원씩 내면서 삐걱대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 언제쯤 당신에게 학문이 아닌 인간적인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남자 화장실에서 보셨다는 농담, 1학년 여학생은 누구나 귀여워하니까 치와와, 2학년 여학생은 부르는 데 없어도 발발거리고 다니니까 발바리, 3학년 여학생은 물면 안 놓으니까 불독, 4학년 여학생은 아무나 무니까 미친개라고요? 그걸 화장실 낙서에서 보고 용변 보시면서 웃으셨다구요? 그걸 수업시간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부분에서 이야기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4학년 여선배에게 "4학년은 무슨 개?"냐고 친절하게 물으면서 까지요. 그 친절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선배의 당황함을 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은 또 다른 수업의 선생님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성폭력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참 딴 소리를 하시더니 "그래도 난 어린 남자애가 좋더라" 라는 말을 하시곤 마치 고의가 아니었다는 듯이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한거람. 이건 실수~"라고 하시더군요. 학교의 공문이 나름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공문은 하찮은 종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여성으로 이런 "소소한" 것들에 놀라는 저를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업만 하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교실에서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뭐가 되었을까요?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성폭력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이지 못하고 유난스러운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선생님도 동참하셨다고, 함께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학생 중에는 어쩌면 학교에서 성폭력적인 발언에 상

이제는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회의 모든 이들이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말해도
나만은 너를 믿는다고 네가 옳은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처입고 힘들어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무언가 배우고 싶다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힘들지만 꿋꿋하게 교실에 앉아서 돈 없으면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상아탑 안의 교수님을 만나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선생님께서 '그 나이도 어린, 일부에 불과한 학생들 때문에 내가 수업에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하고 조심조심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예, 선생님. 그래 주셔야 해요. 그래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너무 쉬운 발언들에 또 다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듣는 것은 선생님의 불편한 농담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이해가 쉬우라고 자주 여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시죠. 역사적 맥락에서도 강간이나 기생 등을 언급하시죠. 물론 그것들은 사실이기도 하고 분명 우리가 문제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재의 시점에서 또 다시 성폭력적인 코멘트로 선생님의 의견이 덧입혀 질 때 그것은 당연히 폭력입니다. 아니, 그때 되어서 그건 오해라고 말씀하진 말아주세요. 차라리 그때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주세요. 그것이 더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만들테니까요.

이제는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회의 모든 이들이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말해도 나만은 너를 믿는다고 네가 옳은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아무 거리낌 없이 저 혼자서도 당신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가 갈 길에 대해 진지하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2003년 5월 22일